

Global Future Dialogue: Yeosijae x SSDP

COVID-19 대응과 포스트 COVID-19 의 과제

성과보고서

일시: 2020 년 7 월 29 일~7 월 30 일

형식: 웨비나 (ZOOM)

주최: 재단법인 여시재, 안전보장외교정책연구회 (SSDP)

여시재
Future Consensus Institute

SSDP
Society of Security and Diplomatic Policy Studies

참석자

한국

윤상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이재영 KGMLab 대표 / 전 국회의원

이용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염재호 여시재 이사, 고려대 명예교수 / 전 고려대 총장

이종인 여시재 부원장

전병조 여시재 특별연구원 / 전 KB 증권 사장

황세희 여시재 미래디자인실장

최원정 여시재 커뮤니케이션실장

일본

Sekiyama Takashi 교토대학 대학원 종합생존학관 준교수

Oguro Kazumasa 호세이대학 경제학과 교수

Noguchi Yukio 히토츠바시대학 명예교수

Hiraizumi Nobuyuki 카지마평화연구소 회장

Tokuchi Hideshi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시니어 펠로우

Watanabe Tsuneo 사사가와평화재단 상석연구원

Okonogi Masao 게이오기주쿠대학 명예교수

Nishino Junya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 교수

Sakata Yasuyo 칸다외국어대학 교수

Akiyama Masahiro 안전보장외교정책연구회 대표

한일양국의 미래를 위한 협력 제안들

1. 국제 보건의료 거버넌스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관 및 글로벌 기업들에 의한 새로운 국제 보건의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보건 의료 분야에서 테크놀로지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GHSA)와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CEPI) 등과 같은 기관들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2. COVID-19 대응 과정에서 위험 소통 (Risk Communication)의 중요성이 부상하였다. 1) 신속성, 2) 정확성, 3) 투명성, 4) 신뢰, 5)공감의 5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한 위기 상황에서의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이 필요하다.
3.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활동 제한보다 검사와 추적이 더 중요하다. COVID-19 에 대한 각국의 정책 대응과 바이러스 감염 상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철저한 검사와 추적은 강한 활동 제한을 반드시 실시하지 않아도 확산 방지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는 PCR 검사의 '위양성' 우려(감염이 되지 않았음에도 양성 판정을 받을수 있다는 우려)는 과장되어 있다. 위양성 문제는 검사의 빈도를 늘림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5. COVID-19 이후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K 뉴딜 정책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을 기발으로 한 한국의 국가전환전략이다. COVID-19 이후 디지털경제 전환 정책은 한일간의 정책 공유와 협력의 대상이 될 것이다.
6. COVID-19 로 인해 심화된 소득분배를 비롯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서로의 정책적 과제를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다.
7. 뉴노멀이 가져오는 새로운 산업 구조는 일본 경제에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일본은 생산성이 저하 문제를 극복하고 뉴 노멀로의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
8. 일본은 향후 생산성 저하,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사회보장 비용 부담 문제, 공적채무 감축의 한계, 잦은 자연재해 대응 문제의 4 가지 과제에 대한 대응을 생각해야 한다.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4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pacious(개방), Scattered(산재), Sparse(원격)의 '3S'를 기준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9. 한중일 정상회담의 정식의제로 지역 금융협력을 포함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금융위원회(East Asian Financial Board)를 발전시키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동아시아에 맞는 금융협력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다.
10. 중국을 포함시키는 동아시아 금융협력 매커니즘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동북아금융협력의 컨트롤타워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금융시장 발전, 금융안전망, 그리고 개발금융의 세 가지 협력분야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동아시아의 금융협력 모델을 세계적 표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다.
11. 글로벌 COVID-19 대응을 비롯한 한일 공조가 필요하다. 남반구의 저개발국가들에 백신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에게 한국의 열린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12. 향후 5 년 안에 전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인 데이터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동북아에서 데이터 허브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13. 한일 양국은 국제규범에 의거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정부가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한일양국의 주둔 경비 부담에 대해서도 양국이 상호의견을 교류하면서 동맹 강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미국 측에 강조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14. 한중일, 한미일 3 자회담 등을 통해 보건 의료,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 국제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동안 단절되어 있는 한일 양국 국방장관 양자회담을 비롯해 양국의 국방 관련 안보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5. 미중경쟁 속에서 스스로의 경제를 유지하고 지역 균형이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한일 양국의 미들파워 협력이 중요하다. 한일 양국은 미중 어느 한쪽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는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다.

Session 1 COVID-19 대응과 학습

세션 1에서는 이중인 여시재 부원장의 진행으로 'COVID-19 대응과 학습'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 양국의 COVID-19 대응과 현황을 확인하고 서로 배워야 할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각국의 대응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한일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인 윤상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글로벌 보건의로 협력의 필요성에 관하여 발언하였다. COVID-19와 같은 감염질환은 몇 년 전까지 국제사회에서 주목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과거와 현재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해왔는지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더불어 그러한 공동 대응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였다. 국제 보건의로 거버넌스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WHO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관 및 글로벌 기업들에 의한 새로운 국제 보건의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상선 교수는 글로벌 의료 협력의 사례로 두 가지 단체,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GHSA)와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CEPI)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협력 기관들이 보건 의료 분야에서 테크놀로지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설명하여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최원정 여시재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위기 상황에서의 한국의 대응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원칙과 새로운 합의에 대해 발언하였다. 최원정 실장은 위험 소통 (Risk Communication)에 대해 설명하면서 1) 신속성, 2) 정확성, 3) 투명성, 4) 신뢰, 5)공감의 5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한 위기 상황에서의 정부와 국민 사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여 이동 경로나 수단에 대한 정보 공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왔다. 이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COVID-19 사태에서는 IT 기술 접근성을 높이는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번 사태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최원정 실장은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정부는 국민과 상시적으로 접촉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노력을 통해 평상시부터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세키야마 타카시 교토대학 대학원 종합생존학관 준교수는 COVID-19에 대한 각국의 정책 대응과 바이러스 감염 상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18 개국을 대상으로 신규 확진자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10 개의 지수(재택근무, 행사나 집회의 금지,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를 비롯한 활동제한, 검사 추적 방침 등)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3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1) 활동 제한의 시작이 빠르면 느린지는 그 후의 감염 억제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감염 억제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활동 제한의 강도에 차이는 있으나 검사와 추적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3) 철저한 검사와 추적 없이 활동 제한을 푼 나라는 제 2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다 — 즉,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활동 제한보다 검사와 추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한 활동 제한은 생산과 소비 등 경제활동의 침체를 초래하여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철저한 검사와 추적은 강한 활동 제한을 반드시 실시하지 않아도 확산 방지를 할 수 있다. 반대로 검사와 추적이 철저하게 안 할 경우 활동 제한에 의해 일시적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더라도 이를 완화할 경우 바로 재확산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키야마 교수는 일본은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활동 제한 요청에 시민이 잘 응답했기 때문에 1 차 유행을 넘긴 수 있었으나 검사와 추적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로 활동제한을 완화하면서 제 2 물결의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오구로 카즈마사 호세이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PCR 검사체제의 확충과 위양성(偽陽性) 문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오구로 교수는 PCR 검사에 대한 일본 시민들의 인식에 문제 제기를 하였다. 일본에서는 검사에 대해 누가 감염되지 않았는가보다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우선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강하다.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감염이 되지 않았음에도 양성 판정을 받는다는 뜻인 '위양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위양성이 나올 확률은 1 퍼센트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들이 병원에 가면 의료 붕괴가 발생되므로 검사를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구로 교수는 이 확률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위양성 문제는 검사의 빈도를 늘림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일본 정부가 최근에 승인한 '항원 검사'는 위양성의 확률은 높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 키트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므로 검사의 빈도를 더 늘릴 수 있다. 오구로 교수는 검사체제를 확충시켜 빈도를 늘리는 것이 확진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COVID-19 에 대한 양국 정부 대응 차이나 시민들의 인식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협력이 가능한지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백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한일이 협력을 통해 임상 실험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미래 한일 협력의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도 했다. 또한 WHO 와 같은 기존의 조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전문가 및 민간기관들이 정부의 공식 견해나 외교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통된 의사를 표시했다.

Session 2 포스트 COVID-19의 사회경제 뉴노멀

세션 2에서는 아키야마 마사히로 안전보장외교정책연구회 (SSDP) 대표의 진행으로 '포스트 COVID-19의 사회경제 뉴노멀'을 주제로 발표 및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전병조 여시재 특별연구원 (전 KB 증권 사장)은 한국의 디지털 뉴딜 정책의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이란 한국 경제의 기존 모델이었던 추격형 발전경제 모형에서 벗어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소득분배 불균형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포스트 COVID-19 국가 발전 전략이다. 전병조 특별연구원은 한국판 뉴딜의 주요 내용인 1) 디지털 뉴딜, 2) 그린 뉴딜, 그리고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람 투자에 관한 3) 안전망강화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인 10 가지 프로젝트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7월에 발표된 이 한국판 뉴딜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한국의 디지털 전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향후 국가 대전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재영 KGM LAB 대표는 '언택트 시대의 한일협력'을 주제로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삶의 변화와 그 속에서 한일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포스트 COVID-19 시대에 일어나는 컨택트에서 언택트로의 전환에서 오는 국내외 여러 변화들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팬데믹이 가져오는 여러 사회적 문제로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를 강조하면서 재택 근무 등 새로운 근무 환경이 일상화 됨으로써 소득분배에 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것을 지적하였다. 인구구조 등 사회 구조적으로 비슷한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소득 분배나 불평등의 부분에서도 협력을 통해 서로의 정책적 과제를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일본 측 발제자로 노구치 유키오 히토츠바시대학 명예교수가 "일본은 뉴노멀로의 이행이 가능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뉴노멀의 사례로 재택근무와 전자상거래를 들면서 일본에서의 현황과 과제를 설명하였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재택근무를 도입한 기업은 전국에서 27 퍼센트에 불과했으며 정부가 지정한 목표인 70 퍼센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노구치 교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성과보다 업무 시간에 기준을 둔 평가 방식 문제와 정보 시스템의 노화나 정보업무 처리 방식의 디지털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부문에 있어서도 공급 측의 능력이 부족으로 대응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뉴노멀이 가져오는 새로운 산업 구조는 일본 경제에 도전으로 다가올 것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생산성이 저하될 경우 여러 국가들이 일본의 1인당 GDP를 넘어서게 되는 것은 멀지 않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현 상황을 타파하고 뉴노멀로의 이행에 성공할 경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마지막 발제자로 히라이즈미 노부유키 카지마평화연구소 회장이 'COVID-19 이후의 사회경제 뉴노멀'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일본은 COVID-19 확산 이전부터 크게 4가지 과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일본은 COVID-19 이후의 사회에서 생산성 저하, 사회보장 비용 부담의 문제, 공적채무 감축의 한계, 잦은 자연재해 리스크로의 대응의 4 가지 과제에 대한 대응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팬데믹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밀폐, 밀집, 밀접의 3 가지 '밀'을 피하자는 '3 밀'의 개념이 사회에 잘 침투되었다. 4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 밀'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Spacious(개방), Scattered(산재), Sparse(원격)의 '3S'를 지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히라이즈미 회장은 '3S'에 입각한 다양한 방안들을 4 개에 과제로의 공헌도로 측정하여 포스트 COVID-19 시대에 일본이 집중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양국의 더 자세한 디지털 정책의 진행상황과 한계점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7 월에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어 그 정책의 배경과 내용이 주목되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승되고 발전되어 온 한국판 뉴딜은 COVID-19 속에서 디지털 시프트를 더욱 가속화하고 확고한 것으로 만들었다. 한편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일본의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COVID-19 를 하나의 계기로 삼아 일본 사회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거론되었다. 특히 양국이 모두 기반을 갖고 있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 공장 등 기존의 인프라와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안되기도 했다.

Session 3 포스트 COVID-19 의 국제관계 변화

COVID-19 는 각국의 국내 정치, 행정에 한하지 않고 외교 및 국제관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COVID-19 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변동 과정을 고찰하고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먼저 이용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중경쟁 시대의 한일 금융협력의 전망에 대해 발언하였다. 현재 존재하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3 가지 큰 틀은 금융안전망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ABMI), 그리고 지역 개발금융인 ADB 와 AIIB 이다. 이 교수는 이러한 기존의 협력틀을 활용하여 유럽 못지 않은 금융협력 시스템을 동아시아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한중일 정상회담의 정식의제로 지역 금융협력을 포함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금융위원회(East Asian Financial Board)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동아시아에 맞는 금융협력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중국을 포함시키는 동아시아 금융협력 매커니즘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동북아금융협력의 컨트롤타워 형성을 제안하였다. 금융시장 발전, 금융안전망, 그리고 개발금융의 세 가지 협력분야를 총괄하는 특정한

컨트롤타워는 전세계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아시아가 이러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동아시아의 금융협력 모델을 세계적 표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한일 양국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언자인 황세희 여시재 미래디자인실장은 글로벌리더십의 공백 속에 어떠한 한일협력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황 실장은 향후 진행될 미중 경쟁은 G0의 시대에 리더십 공백을 획득하기 위한 영향력 경쟁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리더십은 20세기 후반 미국이 영위했던 디폴트 파워로서의 지위를 누가 획득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를 지나며 미국은 디폴트 파워의 지위에서 철수하였고 중국이 그러한 디폴트 파워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국제질서 전환기 속에서 한일이 결국은 글로벌 공백을 함께 메꿀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COVID-19 대응 관련 협력을 사례로 들었다.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에게 열린 방역을 성공적으로 펼친 인천국제공항의 검역 시스템을 비롯해 한국의 열린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이에 더해 백신과 치료제의 공동개발도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남반구의 저개발국가들에 백신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진행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1997년 한국에 설립된 국제 백신 연구소와 한일이 함께 연계해서 남반구의 저개발국가들에 백신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향후 5년 전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인 데이터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동북아에서의 데이터 허브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동북아 데이터 거래소, 동북아 데이터센터 구축에 더해 데이터 유통 국제규범을 만드는데 양국이 협력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일본측 참가자인 토쿠치 히데시 정책대학대학원 객원교수는 포스트 COVID-19 인도태평양 질서와 일본의 역할에 대해 발언하였다. 토쿠치 교수는 감염병의 대유행과 같은 비전통적인 과제들은 비교적 국제협력이 진행되기 쉬운 분야라고 여겨져 왔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COVID-19 이후의 세상에서는 전통 안보와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미중 경쟁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상실한 미중 양국은 백신 개발과 정치제도를 둘러싼 경쟁을 전개하면서 국제기관의 역할이 가지는 한계, 주권국가의 역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세계화와 중국 의존도 탈피 등의 과제를 경험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남중국해, 동중국해와 같은 기존의 군사적 위협 등이 미중 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토쿠치 교수는 다양한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어떤 안전보장정책을 책정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한일간의 안보 협력 추진 방안을 다음의 세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 동맹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일 양국이 국제규범에 의거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의견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한일 양국의 공통된 현상이다. 그러나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 그간 제공해 온 프레즌스를 유지하는 것은 한일 양국에게도 이익이다. 트럼프 정부가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한일양국의 주둔 경비 부담에 대해서도 양국이 상호의견을 교환하면서 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미국 측에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한중일, 한미일 3자회담 등을 통해 보건 의료,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

국제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동안 단절되어 있는 한일 양국 국방장관 양자회담을 비롯해 양국의 국방 관련 안보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는 전통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협력이다. COVID-19 확산으로 인해 군사훈련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등 군사력 발휘 측면에서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쿠치 교수는 지적했다. 미국과 동맹국의 동맹 상호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 압박으로 인한 국방예산 확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쿠치 교수는 핵과 감염병 바이러스는 동북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 발언자인 와타나베 츠네오 사사카와 평화재단 상석 연구원은 미중대립 시대의 한일 미들파워 전략에 대해 발언하였다. 와타나베 연구원은 COVID-19 가 미중 관계를 경쟁적으로 만들었고 자국의 안보와 방위를 미국과의 동맹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COVID-19 의 미숙한 대응으로 인해 트럼프의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했고 재선도 불투명해졌다. 지금 트럼프 정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COVID-19 의 책임을 중국에 넘기는 것이라고 와타나베 연구원은 설명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다수의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최근에 내놓은 대중 강경발언은 부동층에게 COVID-19 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것을 전하는 캠페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이 현재 추진중인 디커플링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기능에 그칠 것이라고 보았다. 미국은 중국을 자신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고 이는 정권이 바뀔다고 해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와타나베 연구원은 그런 측면에서 미중관계가 경쟁적·대립적 패러다임에 돌입했다고 보았다.

다만 와타나베 연구원은 미국 내에서 중국의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합의는 있으나 중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한 의견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 한일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하는 국가 안보상의 이익보다는 미국이라는 국가를 흑자로 돌리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 관심사라는 의도에서, 동맹국에게 부분적인 디커플링을 강요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은 미중 어느 한쪽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는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 때문에 미중경쟁 속에서 스스로의 경제를 유지하고 지역 균형이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미들파워의 협력이 중요하며 한일 두 나라가 이러한 점에서 적극적인 활동과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질서와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미중 대립 속에서 어떤 입장과 대응을 취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동남아, 인도, 호주 등의 국가와 한일이 협력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중이 각각, 혹은 공존하는 다양한 21 세기형 국제질서가 형성될 것이고 이에 한일 양국은 선택을 강요 받기 쉽다. 미중이 각각의 그룹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아세안 또는 EU 와 연계하여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동아시아 채권시장 구상이나 동아시아 금융위원회와 같은 금융협력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Closing

클로징 세션은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두 지성이 이틀간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전 고려대 총장인 염재호 여시재 이사는 미국의 장기적이고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현재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 강경정책은 중국이 패권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시베리아 가스관의 동북아 연결과 같은 새로운 발상을 통해 현재 처한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활발한 양국의 인적 교류에 더해 양국의 지식인들, 정책결정자들이 미래 담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와 일본, 동북 3 성, 그리고 극동러시아를 연결하는 동북아 지역의 미래 협력을 흥미로운 상상으로 정부간 대화뿐만 아니라 1.5 트랙, 2 트랙 대화를 통해 동북아의 미래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이틀간의 세미나를 돌아보며 COVID-19 와 미중 경쟁이라는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미래를 향한 양국 전문가들의 의견교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일간에 놓여진 과거사 문제, 수출규제 문제 등 정치적 사안들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현안들이 글로벌 차원의 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한일관계에 있어 양국의 리더십이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미들파워 연계라는 측면에서 한일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한일관계는 상호보완적인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미중 사이에서 공통의 전략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미중관계, 북한의 정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켜도 되겠느냐는 기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오코노기 교수는 진단했다.



Future Consensus Institute

www.yeosijae.org

Tel +82-70-4280-1298 / Fax +82-2-762-5300



<http://ssdpaki.la.coocan.jp/>

Tel +81-3-3721-0877 / Fax +81-3-3721-0988